

“탄핵 완수” vs “탄핵 기각” 대립의 3·1절

정치권 대변인 논평

야 “탄핵 후 새 국가 건설”

여 “국론 분열 이제 멈춰야”

여야는 1일 제98주년 3·1절을 맞아 국
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박
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날 선 대립
을 보였다.

범여권은 탄핵 사태로 촉발된 국론분열
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야권은 탄
핵을 완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자유한국당은 김성원 대변인은 이날 논
평에서 “이제 분열과 갈등의 장벽을 걷어
내고 ‘애국, 번영, 화합’이라는 3·1운동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갑작스러운 3·1절을 맞이
했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 탄핵 찬
성과 반대로 국론이 분열돼 첨예하게 대
립하며 서로를 향한 강한 적개심마저 드러
내고 있다”며 현 상황을 우려했다.

범여권인 바른정당의 이기재 대변인도
논평에서 “어떤 상황에서 일제강점기를
맞게 됐는지, 나라의 독립을 되찾기 위해
얼마나 많은 피와 눈물이 뒤따랐는지 잊
지 말아야 한다”며 “모든 정당과 정치지
도자들은 쪼그라든 국론을 모으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논평에서
“98년 전, 우리 선조들은 일본의 식민 지배를
거부하고 자주독립을 되찾고자 분연
히 일어섰고 일제의 총칼에 태극기를 들고
맞섰다”며 “우리는 오늘 국민과 함께 촛
불광장에서 순국선열의 숭고한 뜻을 되새
기며 박 대통령의 탄핵을 소리 높여 외칠
것”이라고 밝혔다.



외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98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경축사를 마친 뒤 자리로 돌아가며 야당 지도부 앞을 지나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박 대변인은 “대통령의 탄핵을 다
루는 헌법재판소 재판정에서 태극기를 몸
에 감고 파포먼스를 하는가 하면, 태극기
를 들고 내란을 선동하고 백색테러까지
조장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태극기의
숭고한 의미 훼손을 개탄했다.

국민의당 김경진 수석대변인도 논평에
서 “일본 정부의 탄압에도 선조들이 쫓겨

이 지켜왔던 자랑스러운 태극기가 대통령
의 헌법파괴, 불법행위를 감싸려는 일부
극우단체에 악용되고 있는 현 상황이 무엇
보다 안타깝기만 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의롭고 자유로운 대한민국, 특
권과 반칙이 없는 공정한 대한민국, 국민
간의 격차가 해소된 평등한 대한민국이 순
국선열께 바치는 국민의당의 다짐”이라

고 강조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삼일절에 직면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에 순국선열에 들
맞이 없다”며 “이번 탄핵 정국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치권이 욕심을 버리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보다 헌신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

황교안-野 대표들 어색한 만남

특검연장 불승인에 환담 분위기 냉랭…야, 항의성 불참·지각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1일 서울 세
종문화회관 귀빈실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과 여야 대표들을 비롯한 정치권 인사들
과 7~8분기량 비공개 환담을 나눴지만
분위기는 냉랭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
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국민의
당 박지원 대표, 바른정당 정병국 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지난해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로 대통령 권한을 넘겨받
은 이후 황 권한대행이 여야 대표들과 한꺼
번에 자리를 같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특별검사 수사기간 연장 불승인에

이유로 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
고 나선 상황이었어서 분위기는 냉랭했던 것
으로 전해졌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3·1절 기념식에는
참석했으나 자담에는 들어가지 않았고, 국
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항의의 의미로
아예 행사에 불참했다. 추 대표는 차담회가
끝날 때쯤 들어가 황 권한대행과 악수만 하
고 대화를 하지 않았으며 박지원 대표도 가
시 돌린 얘기를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환담 후에도 냉랭한 분위기는 이어졌
다. 추 대표는 황 권한대행이 기념사를 낭
독하는 내내 거의 시선을 주지 않았고, ‘국
론 분열’에 관한 언급이 나올 때는 입을 꼭
다물기도 했다. /임동욱기자 tuim@

광주 온 이재명 “국토 균형 발전”

독립운동기념탑 참배·무등산 탐방 등 2박3일 일정 마무리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은 1일 “광주와 전남이 불균형
성장과 지역 차별에 따른 이중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광주독립운동기념탑 참
배를 마치고 2박 3일 일정으로 광주와 전
남을 찾은 소회와 지역 민심에 대한 생각
을 밝혔다.

그는 “이 지역이 경제발전이나 정부정
책에서 소외감이 크다”며 “국토 균형발전
이라는 국가적 과제가 절실하게 느껴졌
고, 적폐 청산과 공정국가 건설이라는 국
민적 열망이 밀바닥에서 거대한 민심으로
흐르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는 호

남에서 시작됐다”며 “3·1 만세운동 역시
광주학생의거로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과
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광주독립운동기념탑 참배 후 무등산을
찾은 이 시장은 문빈정사 앞에서 지지자들
과 98주년 3·1절을 기념하며 만세삼창을
했다.

이 자리에서 “세계 역사에 없는 평화로
운 무혈혁명이 완성 직전에 있다”며 “마
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를 소망한다”고 했다.

무등산 노루현길 탐방을 마친 이 시장은
지지자모임인 ‘손가락혁명군’ 지역 회원
과 오찬간담회를 끝으로 광주·전남 방문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종형기자 glee@

민주 후보들 3인3색 메시지

文 “시민혁명 완성”·安 “누구와도 대화”·李 “野 연합정부 수립”

3·1절을 맞아 문재인·이재명 후보는
투쟁에 방점을 찍힌 메시지를 던진 반
면, 안희정 후보는 국민 통합을 강조했다.
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1일
“촛불집회는 일종의 국민 저항권 행사”
라며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시민혁명으
로 완성되도록 모든 국민이 마음을 모
아달라”라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에서
열린 3·1절 기념 행사에 참석해 “촛
불집회는 3·1 만세시위와 참으로 비슷
한 점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전 대표는 “3·1 만세시위는 잃어
버린 나라를 되찾으려는 것이었고, 촛
불집회는 무너진 나라를 다시 일으키자
는 것이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강조하
기도 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과 국정농단세
력이 대한민국을 한없이 부끄러운 나라
를 만들었지만, 국민이 다시 자랑스러
운 나라로 만들어줬다”며 “이번에야말로
촛불혁명이 완성돼야 한다”고 목소
리를 높였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한정 질서를 바
로잡는 개혁에 동의한다면 그 누구와도
대화하고 타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이날 충남 천안 독립기념
관에서 열린 제98주년 3.1절 기념식 기
념사에서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대화

하고 타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기 정부는) 적폐청산은 물론
경제위기,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복지
등 수많은 시대적 과제를 해결해야 한
다”며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절대다수 국민이 단결할 수 있다
면 평화와 번영도 흔들림 없이 지켜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순실 국정농단에는 ‘법
에 따른 처벌’을 강조했다. 그는 “법에
따라 처벌하고 국민이 주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특권 세력에 개혁조치가 뒤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촛불혁명은 제2
의 3·1운동”이라면서 “총칼 앞에서도
끝까지 비폭력과 평화를 고수했던 선열
들의 정신을 되새기자”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3·1절을 맞아 페이스
북에 올린 글에서 “실질적 자유와 평등
이 보장되는 민주공화국의 완성, 이를
실현하기 위한 야권연합정부의 수립이
야말로 촛불민심의 명령이다. 그것이
곧 3·1운동의 진정한 완성”이라며 이렇
게 강조했다.

그러면서 “촛불민심을 꺾기 위한 시
도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결국
국민이 승리할 것이다. 촛불을 든 시민
들과 함께 해온 이재명은 끝까지 촛불
혁명의 완수를 위해 매진하겠다”고 말
했다. /임동욱기자 tuim@

“文은 北 정치인” 위키백과 조작 파문

선관위, 고의성 조사

온라인 백과사전인 ‘위키백과’에 더
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북한 정
치인인 것처럼 잘못 등재돼 파문이 일
고 있다.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문 전
대표 측이 경찰에 수사 의뢰를 검토하고
있다.

문 전 대표 측 관계자는 1일 “지난달
위키백과에 문 전 대표를 검색하면 ‘조
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치인’이라고
나왔다”며 “지금은 ‘대한민국의 정치
인’이라고 제대로 고쳐져 있다”고 설명
했다. 위키백과는 네티즌 누구나 자유
롭게 정보를 편집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누군가가 고의로 정보
를 고친 것으로 보인다”며 “조작된 정
보가 돌아다닐 경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다. 경찰에 수사를 의뢰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위키백과에는 이재명 성남시장
에 대해서도 한때 잘못된 정보가 등재
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한때 이
시장에 대해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
화국 소속 정치인’이라는 설명과 함께

북한의 인공기까지 표기됐으나, 지금은

‘대한민국의 변호사이자 성남시장’이라

고 제대로 고쳐져 있다.

이 시장 대변인인 제윤경 의원은 “이
사안을 어불설 넘어가면 문제가 더 커
질 수도 있고, 더 높은 수준의 공격이 들
어올 수 있어 미리 차단하는게 필요하
다고 판단했다”며 수사의뢰 방침을 밝
혔다.

이 시장 측도 법적 조치 의사를 밝힘
에 따라 문 전 대표 측은 이 시장과 함께
고발할지, 당을 통해 고발할지를 두고
내부 조율 중으로 전해졌다.

야권에서는 민주당 주자들의 정보가
동시에 조작됐다는 점에서 조직적인 정
보조작 움직임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
견도 나오고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사안이 선
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해 “단순
한 허위사실을 넘어 특정 후보자에 대
한 당선 또는 낙선 등을 목적으로 한 고
의성이 인정돼야 한다”면서 “조사를 통
해 고의성 여부를 판단해 보겠다”고 밝
혔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公國
認家

2017 漢字·漢文指導師資格

※教育部 國家公認 研修生募集

구 분	광주여자대학교(2471)	광주교육대학교(1571)
개강일시	· 금요일 오전반: 2017.3.3.(금) 08:30 (초급반) 토요일 오전반: 2017.3.4.(토) 08:30 (특급반)	· 월요일 오후반: 2017.3.6.(월) 14:30 (초급반) · 목요일 오전반: 2016.3.2.(목) 08:30 (초급반) · 토요일 오후반: 2016.3.4.(토) 14:30 (특급반)
모집기간	2017. 1.18(수)~3.4.(토)	2017. 1.18(수)~3.4.(토)
수업기간	2017. 3.3.(금)~2017. 8.12.(토) (6개월 24주 96시간)	2017. 3.2.(금)~2017. 8.12.(토) (6개월 24주 96시간)
수업시간	· 오전반 09:10~13:00 · 오후반 14:10~18:00	· 오전반 09:10~13:00 · 오후반 14:10~18:00
수강료	₩360,000 (예금주:광주여대) · 광주은행: 148-107-307803	₩360,000 (예금주:광주교대) · 국민은행: 773901-01-476736
수료후 특전	· 12년제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흥회 회원지도사 자격취득 기회 부여 · 각 현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 고급학교병과 후 교육감서 추천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사범배특기회 부여)	· 12년제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흥회 회원지도사 자격취득 기회 부여 · 각 현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 고급학교병과 후 교육감서 추천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사범배특기회 부여)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문 의: 062)850-3582~4 · 지도교수(선병공): 010-3614-4180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always.kwu.ac.kr	· 문 의: 062)520-4243 · 지도교수(선병공): 010-3614-4180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www.gnue.ac.kr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임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고려수지침을 연구하시면 평생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정통 서금요법·고려수지침 강좌

정통 수지침은 고려수지침으로 1975년에 유래우 박사가 처음으로 개발 창시하였습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참조).
고려수지침은 현재 10개 국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서금요법이란 수지침 외의 서암뜸, 기마크봉, 서암온열뜸기, 아류법, 금봉 등을 말합니다. 고려수지침·서금요법은 한의약이 아니고 한국의 새로운 의학입니다.
(고려수지침 강좌는 영어,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페르시아어, 히브리어, 중국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자신과 가정, 단체의
평생 건강관리에 필요하고
질병을 속히 낫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되며 부작용,
후유증, 위험이 없습니다.

고려수지침·서금요법은
자원봉사에 좋으며
외국 이민, 귀농, 농어촌 생활에도
꼭 필요합니다.

우측의 책자를 구입하시면 무료 세미나에
참석하여 배울 수 있고, 월간 서금요법을
발송해 드립니다.

개정판
고려수지침강좌
최신 개정판
고려수지침강좌
(精選千指針講座 第13版)
한글판 1冊
한글판 1冊

유래우 원저 / 4×6배판 / 508면 / 정가 60,000원

고려수지침·서금요법
14기맥학(十四氣脈學)
(제3 개정판)
한글판 1冊
한글판 1冊

유래우 원저 / 4×6배판 / 367면 / 정가 53,000원

(주)고려수지침 ■문의처 : (02)2231-3000 ■통신구입처 : (02)2233-0841~2
■인터넷 쇼핑몰 www.seokeumshop.com (고려수지침학회중앙회를 검색하세요.)
■광주지회 062)224-5343 ■전남지회 062)525-0001 ■광주동부지회 062)227-3407 ■광주북부지회 062)512-2170
■광주남부지회 062)673-8492 ■광주광산지회 062)956-2237
※타 지방에서는 전국의 160여 지회를 이용 바랍니다.